

파견기간	25.01.08 ~ 25.07.07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1-11517
파견국가	영국		소 속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파견대학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성 명	송석호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교환학생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꼭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고, 한국에서만 살아온 세계 외국에서의 생활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공부해보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스스로 경험해 보고 싶었고, 이번 기회에 영어 회화 능력도 함께 향상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군 복무를 마친 직후,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은 시기에 내가 관심 있는 과목들을 해외 대학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에든버러 대학교를 파견대학으로 선택하게 된 데에는 과거 여행 갔던 경험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여행하면서 에든버러 도시의 중세적인 분위기가 다른 유럽 도시와 달리 색다른 느낌이 들었고 대학 자체도 역사가 깊고 영국 내에서도 손에 꼽는 대학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국가를 선택할 때 미국이 아닌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국가가 과거 2번 정도 방문했었기에 더 익숙했었고, 오랜 축구 팬으로서 영국 현지에서 축구 경기를 직접 관람해 보고 싶었기에 영국을 선택했습니다.

에든버러는 영국의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비가 자주 오는 편이지만, 하루 종일 우산을 써야 할 정도의 비는 드뭅니다. 항상 구름이 끼어 우울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해 질 무렵 비가 그치고 난 후 하늘에 핑크빛 노을이 물드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고 봄에는 날씨가 좋은 날도 많아 생각보다 지널만한 것 같습니다.

에든버러만의 고유한 특징으로는 스코틀랜드의 옛 수도로 역사적인 건축물이 도시 전역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중세 유럽을 연상케 하는 외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공원이 위치하고 특히 Carlton Hill이나 Arthur's Seat에서 보는 도시 전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 비교적 선선하고, 겨울에는 생각보다 추위가 심하지 않아 생활하기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음식은 영국이라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최근 다양한 아시안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든버러 대학은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영국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제도가 도입되어 입국 전 별도의 전자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ETA는 약 10파운드의 수수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는 보통 하루 이내로 처리됩니다. 다만, ETA는 관광이나 단기 체류에 적합한 방식으로, 영국 내에서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유급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자 신청이 필요한데, 이는 ETA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아 저는 비자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환 합격 발표 이후로 서울대 이메일을 통해 파견교의 메일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때 오는 메일들은 숙소나 안내 사항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어 정기적으로 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에든버러 대학 이메일도 발급받게 되는데 이후에는 파견교 이메일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학기 초 다양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환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열리기 때문에 에든버러대 이메일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 신청 절차는 교환학생 선발 이후 서울대학교 이메일을 통해 에든버러 대학교 측으로부터 상세 안내를 받게 됩니다. 에든버러 대학교는 시내 곳곳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전통적인 캠퍼스형 기숙사보다는 일반 주택 사이사이에 소규모 기숙사가 많습니다. 숙소 유형과 시설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숙사 비용은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숙소는 Sciennes 라는 기숙사였으며, 1년 단위의 계약 조건만 명시되어 있어 한 학기 기준의 정확한 비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의 메일을 드려 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진 못했습니다. 실제 낸 비용은 1년 치 금액의 2/3 수준이었으며, 저는 약 3,500파운드를 5개월에 걸쳐 나눠서 납부했습니다. 기숙사는 모두 1인 1실이며, 추가 비용을 내면 개인 화장실이 포함된 flat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친구랑 같은 flat에 배정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입국 전 준비 사항은 해외 결제할 수 있는 카드와 보험 가입 정도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현지 의료 서비스를 위해 GP(General Practitioner) 등록도 가능하지만, 등록 절차도 복잡하고 대기 시간도 길다고 해서 일상적인 질병은 한국에서 상비약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대부분 일반 의약품은 영국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는 Monzo라는 영국 은행을 통해 영국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어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 이 은행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체크카드 2개와 영국 카드 하나로 생활했지만,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가져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V. 학업

에든버러 대학의 수강 신청 방식은 국내 대학과는 다소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파견대학으로부터 수강과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양식이 이메일로 전달되며, 여기에 원하는 과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각 과목의 소속 단과대학이 결정되고 단과 대학별로 학생 담당 Student Advisor가 배정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수강 관련 소통이 해당 adviso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국 가기 전 모든 과목이 수강 확정이 되지만, 도착 후 일주일간 수강 변경 기간이 존재하여 이때 수가 과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기간을 활용하여 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시간표 구성은 lecture, tutorial, lab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ecture는 교수의 일반강의이고, tutorial은 조교가 소규모로 진행하는 보충 수업입니다. Lab은 tutorial과 유사하지만, 담당 교수가 직접 진행하며 일정이 고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수업 때문에 시간표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student advisor에게 희망 과목 목록을 전달하면 강의나 랩이 중복되어 신청 불가능한 과목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Informatics에서 40 credit, Mathematics and Statistics에서 20 credit을 이수했습니다. 제 본 전공이 대학교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관련 교과목이 있어 이 위주로 수강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한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전공 위주로 들어 교양 과목을 듣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수업은 대부분 출석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며, 실시간 강의는 모두 녹화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강의실에 직접 가지 않아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랩 수업이나 튜토리얼 역시 출석 여부가 크게 반영되지 않아, 수업 참여는 전적으로 학생의 자율에 맡겨지는 편입니다. 강의 자료와 공지 사항도 모두 etl 같은 웹사이트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학기 전반에 걸쳐 온라인으로 대부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튜토리얼은 토론 또는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은 직접 참석하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수업은 가능하면 직접 참석하려 노력했습니다.

V. 생활

저는 영국 가기 전 최소한의 물품만을 갖고 대부분을 현지에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위탁 수화물로 들고 갈 수 있었던 게 대형 캐리어 두 개가 한계였고 택배로 영국에 보내자니 현지에서 사는 것이 택배비보다 더 저렴할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식기류, 상비약, 계절별 의류 정도만을 챙겼고, 가전제품은 전압이 한국과 달라 현지에서 구매했습니다.

기숙사에는 매트리스와 책상 램프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영국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생필품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이케아가 있어서 대부분 생필품을 여기서 구매했습니다. 이불, 베개, 주방용품 등 초반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여기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은 아마존에서 구매했고, 특히 아마존 프라임이 에든버러 대학 이메일을 사용하면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익일 배송으로 받았습니다. 기숙사 입주하기 전 기숙사로 택배를 배송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아마존 픽업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처 편의점에 택배를 맡길 수 있어서 당장 써야 하는 물품은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커피포트나 청소기는 flat mate한테 빌리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 이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심은 가기 전에 사는 것보다 영국 현지에서 사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근처 TESCO나 Sainsbury에서 유심을 팔기 때문에, 영국 도착 후 하루 정도만 e-sim을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요금제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을 당시 환율이 1,800~1,900원대로 매우 높았고, 물가 또한 비쌌기 때문에 식비를 최대한 아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외식은 주 1회 이하로 줄였고, 대부분 직접 요리하거나 간단한 편의점 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주요 식자재 마트의 가격대는 Lidl, Aldi, TESCO, Sainsbury 순으로 저렴하고 여기에 안 파는 한국 식자재는 근처 아시안 마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시안 마트의 경우 학생 할인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나열한 마트들은 대부분 어플이 존재하는데 이는 영국 계정의 구글,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가끔 쿠폰도 있어 공짜로 제품을 살 수 있어 꼭 설치하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meal-deal을 활용하면 샌드위치,

스낵, 음료를 £3.50 내외로 구매할 수 있고 가성비가 매우 좋아 자주 이용했습니다.

VI. 동아리

에든버러 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 초 Welcome Week 동안 열리는 동아리 박람회를 통해 각 동아리의 활동과 가입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이상 현지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동아리에 참가하여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탁구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에든버러에는 다양한 스포츠 동아리가 있고,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종류의 동아리도 많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동아리는 학기 초 Beginner Session을 운영하며, 자세한 일정은 동아리별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Edinburgh University Sports Union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Beginner Session에 참석한 후 이후 정식 입단 테스트를 보고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든버러 도시 디비전 안에서 4부리그로 활동하는 팀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원정경기도 치르면서 다양한 대학교 및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에는 에든버러 디비전에서 뛰는 팀이 4개 있었고 스코틀랜드 전체 리그에서 뛰는 팀도 하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팀의 주장과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한 학기 동안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내에서 다른 라켓 스포츠 동아리(스쿼시, 배드민턴, 피클볼 등)와 협력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공동 주최하였고, 이를 통해서 여러 종목을 체험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스포츠 동아리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에든버러 대학교의 스포츠 시설 자체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 개인적인 체육 활동을 즐기기도 좋습니다. 교내 헬스장은 제가 경험한 어떤 헬스장보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우수했으며, 운동 부위 별로 전용 공간이 층별로 분리되어 있어 헬스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암벽 등반, 수영 강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헬스장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어서 교환학생 동안 알차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I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돌이켜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축구를 직접 보고 싶고, 영어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6개월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선택했지만, 막상 다녀와 보니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고, 저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도 큰 자극을 받았고, 덕분에 더 넓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갔더라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방황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오며 외국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낯선 곳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응하여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지만, 어느덧 이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교환학생 생활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면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교환학생을 추천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꼭 다녀오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고, 제게 큰 의미로 남은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위 목차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파란색 상세 목차는 예시로, 작성자에 따라 변경 가능)**

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08 월 10 일
지원자* 서명 필수	송석호 